주일설교 말씀나눔지 2024 2 4

「사무엘상 열여덜 번째 말씀」

## 당신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삶

A Life That Needs No Proof From You 사무엘상 13장 1-15절

- 1.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 년에
- 2. 이스라엘 사람 삼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이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벧엘 산에 있게 하고 일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 3.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 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 4.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 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 5.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삼만이요 마병이 육천 명이요 백성은 해 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벧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 치매
- 6.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 7.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 8.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 9.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 10.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 11.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 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 12.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 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 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 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 셨느니라 하고
- 15.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 를 세어 보니 육백 명 가량이라
- 1. 사울 왕은 제비뽑기에서 왕으로 뽑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비뽑기 이전에 하나님께 서 먼저 그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삼상10:1).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나를 택하셨다는 말씀 구절을 찾아보며(요15:16, 요일4:19), 그 의미를 함께 묵 상하고 나눠봅시다.
- 2.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던 것도 아닌데, 군사 3,000 명을 소집하고 일부 군사들로 하여금 블레셋 국경을 공격하게도 합니다(3). 왕이 된지 2년차에(1) 자신이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실력으로 증명하려고 합니 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5-7)
- 3.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고전7:24).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하여 내 자격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내 삶은 어떠한지 서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 4.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 왕은 암몬전쟁을 치뤘습니다. 암몬은 잔인하고 무섭기로 소 문난 족속이었지만 그때 사울은 담대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 늘 13장에서 블레셋 전쟁을 치룰 때는 사울에게도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5-7).

삼상11:6에는 있는데, 사무엘상 13장에 없는 것은 무엇인지, 읽고 차이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